

NEW PRODUCT · NEW TECHNOLOGY

첨단과학의 결실, 우리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새제품 · 새기술은
첨단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부단한 연구결과의 소산이다.
본 난은 최근에 개발 보급되고 있는
새제품 · 새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게재한다.

지털 경량 카메라

연구실 순례

적외선 탐정

미래형 드릴

롤러식 마우스

의혹의 서스펜션

휴대용 비행선

의료용 레이저펜

스스로 청소하는 샤워 꼭지

세계형 자전거

응통성이 많은 패밀리 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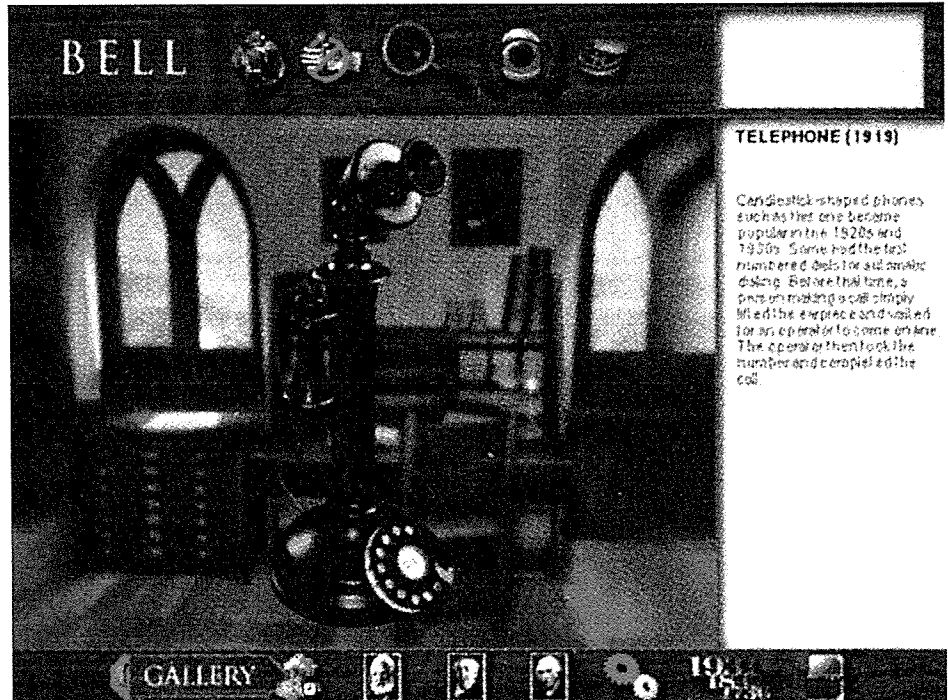
SLR의 캠피언

빛을 내는 로프

하도 보기도 하며

떠들이 얼음과 함께

스포츠한 컨셉트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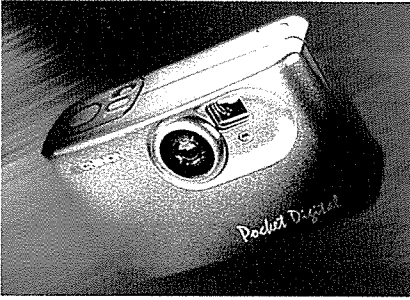


연구실 순례

토머스 에디슨의 연구실로 날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인벤터라브즈'라는 이름의 CD-ROM은 가상현실기술을 비롯하여 만을 만한 필름과 음성기록을 사용하여 에디슨, 알렉산더 그래햄 벨 그리고 제임스 와트(증기기관 발명자)의 연구실을 찾아가서 실험을 한다. 각 연구실에서는 또 손수하는 실험도 할 수 있다. 값은 5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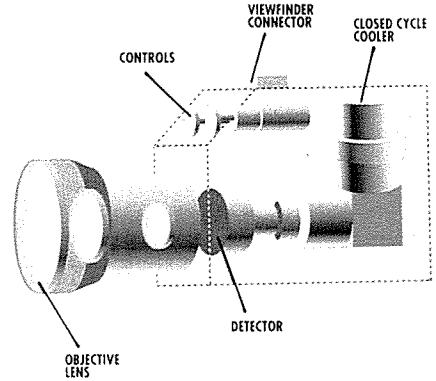
제작사:Houghton Mifflin Interactive, 120 Beacon St., Somerville MA 02143, U. S. A.

디지털 경량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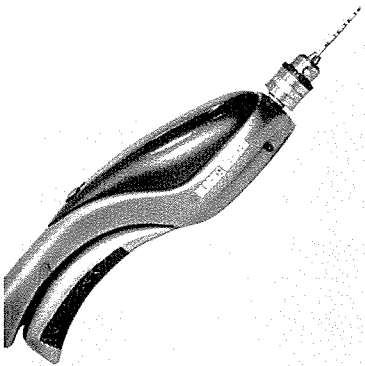


불과 4.2온스(약 120g)의 무게(배터리 제외)를 갖고 보통 포켓키 카메라처럼 제작한 '치논 ES-1000' 디지털 카메라는 501x370 화소의 그림을 찍는다. 4백99달러의 이 카메라는 8개의 영상을 저장하는데 이것을 보조용 PC카드 드라이브로 옮길 수 있다.

제작소: Chicon America, Electronic Imaging Dri., 1065 Bristol Rd., Mountainside NJ 07092 U.S.A.



미래형 드릴



다음 세대의 소비자들은 어떤 종류의 목공용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블랙 앤드 데커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스컨신대학의 산업디자인 학생들에게 구하기로 했다. 많은 학생들은 오늘날의 모델보다 사용자의 손에 보다 안정감을 주고 훨씬 가벼운 원형 드릴을 만들었다. 한가지 특성은 손잡이가 이동할 수 있어 스크류 드라이버와 권총식 드릴 등 두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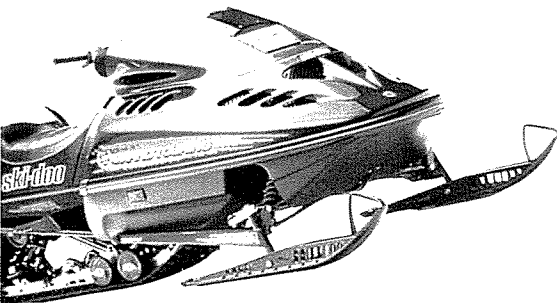
적외선 탐정

세계 최소의 가장 가벼운 카메라인 '인프라캠'은 철축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을 가려낼 수 있고 빌딩의 열손실을 분석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을 추적할 수 있다. VCR에서 볼 수 있는 상세한 영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작은 냉장고로 냉각시킨 적외선탐정기를 사용한다. 5만달러의 이 카메라는 캠코더 배터리로 가동한다.

제작소: Inframetrics, 16 Esquire Rd., N. Billerica MA 01862, U.S.A.

롤러식 마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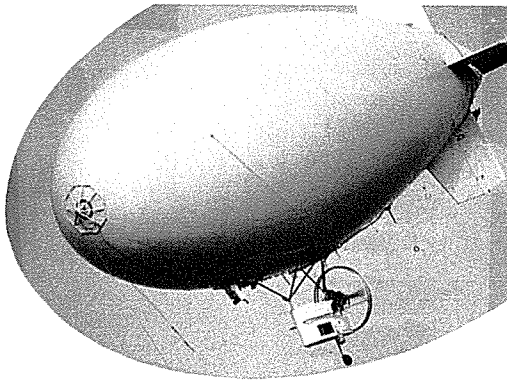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텔리마우스'의 가운데 있는 회색 버튼은 보통 버튼처럼 딸각딸각하고 바퀴처럼 구르기도 한다. 이런 회전활동으로 문서를 한줄씩 옮겨 가면서 스프레드시트의 특정한 칸에 클로즈업할 수 있다. 값은 79달러. 제작소: Microsoft,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6399, U.S.A.



익흑의 서스펜션

어떤 눈에서도 매끄러운 썰매타기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등장했다. '1997 스키-두 그랜드 투어링 SE' 설상차(雪上車)의 대시보드의 스위치를 넣고 길의 형태에 따라 고성능의 후방 서스펜션 시스템을 조절하면 된다. 이 스위치는 에어 콤프레서를 조작하여 충격으로 생기는 공기압을 바로 잡는다. 이 썰매는 또 시동하기 쉽고 고장진단용의 디지털 엔진데이터 기록계를 갖고 있다. 값은 약 8천8백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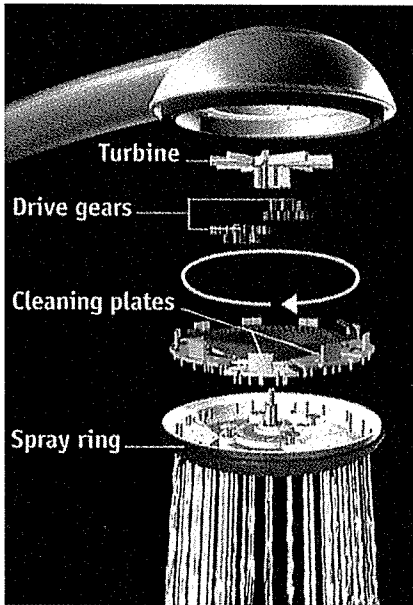
제작소: Bombardier Motor Corp., Box 8035, Warsaw WI 54402-8035 U.S.A.



유대용 비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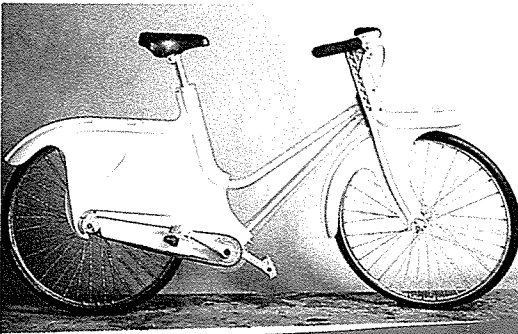
미 육군은 1989년 이래 국경순찰과 다른 목적으로 '새스 라이트' (소형비행선감시시스템이라는 뜻의 머리글자)라고 부르는 무인비행선을 사용했다. 이제 군사장비 대신 TV카메라를 설치한 '새스 라이트'급 비행선은 상업비행을 할 것이라고 미국 앨라배마주 헨츠빌 소재 보쉬 에어로스 페이스사는 말하고 있다. 유인비행선과는 달리 '새스 라이트' 비행선은 휴대할 수 있다. 27m 길이의 이 비행선은 한 행사를 치른 뒤 다른 곳으로 수송할 수 있다.

스스로 청소하는 샤워 꼭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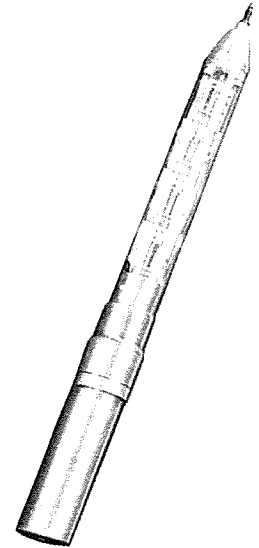
한스그로헤사가 제작한 '아키바 카레스'는 샤워를 할 때 스스로 청소하는 손잡이 샤워다. 물은 터빈의 기어를 돌리고 이 기어가 핀을 밀면 핀은 노즐채널을 청소한다. 값은 1백30~2백10달러. 제작소: Hansgrohe, 1465 Ventura Dr., Cumming GA 30130, U.S.A.

세계형 자전거



세계디자인대회에서 우승한 이 자전거는 2명의 프랑스 학생이 설계했는데 4개의 주요부품만 가졌다. 제작비용은 1백달러이며 인구의 95%에게 적용된다. 자동 트랜스미션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고무벨트를 고정시킨 복합재료의 톱니바퀴가 페달에 걸린 압력에 맞춰 압축하고 팽창하면 사이클링 힘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

의료용 레이저펜



전쟁터나 또는 고속도로 사고와 같은 긴급한 현장의 의사와 의료원들은 장차 미 공군 필립스연구소가 개발한 '레이저 메디컬 펜'으로 부상환자를 깨고 혈관을 태워 출혈을 막게 된다. '메디펜'이라고도 불리는 이 장치는 길이가 12인치이며 지름은 1인치에 미치지 못하고 무게는 1파운드다. 5와트 출력의 이 장치는 3볼트의 리튬 배터리로 기동한다. 제작소: Phillips Laboratory, 3550 Aberdeen Ave. S.E., Kirtland AFB NM 87117-5776, U.S.A.

용통성이 많은 패밀리 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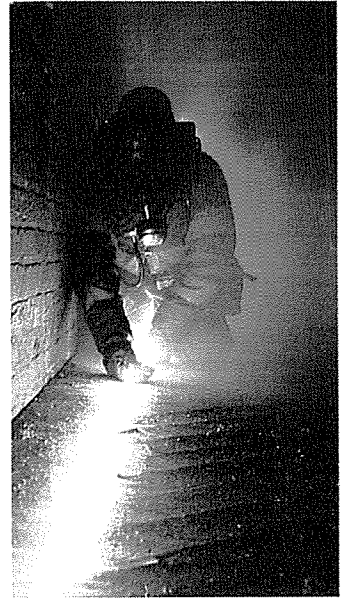
르노사는 MPV(다목적차량)를 줄여서 '메간 세니크'를 만들었다. 길이는 약 4m 밖에 안되지만 바닥은 여분의 저장공간을 갖기 위해 뒤쪽에는 중간층이 있다. 가족용의 용통성있는' 설계로 5명이 앉을 수 있다. 식사때는 앞좌석이 빙그르 돌아서 뒷쪽을 향하는 한편 가운데 의자는 접혀져서 4인용 테이블이 된다. 전륜구동 '시니크'는 최고 150마력까지 47지 엔진옵션이 있다. 제작사: Renault, 34 qui du Pontdu-Jour, 92109 Boulogne-Billancourt,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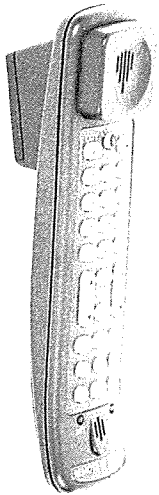
SLR(일안리플렉스카메라)의 챔피언

'니콘'사의 F5 프로용 35mm카메라가 마침내 출시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현행의 35mm카메라보다 60%나 빠른 초당 8 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는 자동초점시스템이다. 이밖에도 3D 컬러 매트릭스 미터는 처음으로 컬러정보를 노출에 도입하는가 하면 셔터는 셔터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값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빛을 내는 로프



'라이트라인 360'은 소방관, 전기공사자 그리고 탐색·구조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의 빛을 내는 로프이다. 방수된 이 로프는 화씨 4백60도까지의 열에 견딜 수 있는 플라스틱 속에 수천개의 미니 형광등을 내장했다. 이 로프는 30m, 60m 또는 90m의 길이로 나오는데 4.5~14암페어의 전력을 사용하고 무게는 12~36파운드다. 값은 30cm당 약 12달러. 제작소: FleexLight, 102 Fernwood Ave., Edison NJ 08837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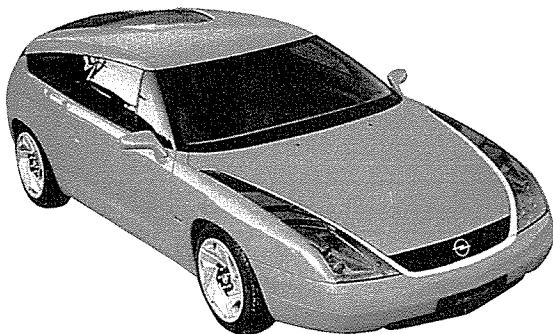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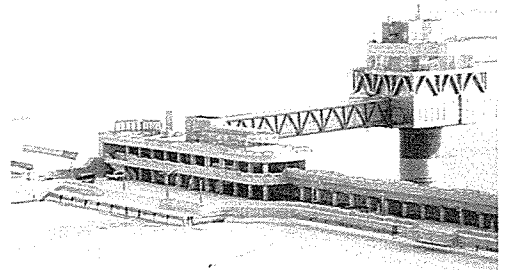


말도 하고 보기도 하며

텔레비전 리모트 컨트롤과 코드가 없는 전화를 조합한 '리모트-엔-폰'은 텔레비전광을 전화광으로 만들지 모른다. 이 장비의 특징은 9자리수의 메모리, 배터리의 힘이 줄어들 때 알려주는 장치, TV-리모트컨트롤을 사용하기 쉽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값은 약 1백40달러. 제작소: G-tel, 6625 Calle Eva Miranda, Irwindale CA 91702, U.S.A.

떠들이 얼음과 함께

일반사람들이 외부에서 바다의 얼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세계의 유일한 시설로 알려진 '오호츠크 타워'는 일본 최북단의 홋카이도섬의 북동끝의 도시인 모베츠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이 타워는 육지에서 8백m 떨어진 오호츠크해에 있다. 관람객용 관람데크와 연구자용 시설은 모두 바다 속에 떠 있는 부빙(浮氷)의 위와 밑에 있는데 이 얼음은 겨울마다 2개월간 이 곳까지 뻗는다.



스포티한 컨셉트카

유리와 투명한 플라스틱 그리고 판금이 함께 어우러져 제네럴 모터즈의 오펜 칼리브라 4x4 쿠페에 바탕을 둔 '버튼 살롬'이라는 이름의 다이내믹한 스포츠세단 컨셉트카를 만들고 있다. 뒷좌석을 유도레일로 앞으로 밀면 짐칸은 40인치에서 63인치로 넓어진다. '살롬'은 204마력을 내는 터보차지 2리터 16밸브 엔진으로 추진된다.

제작소: Carrozzeria Bertone S.p.A., Corso Canonico Allamano 40/46, 10095 Grugliasco, Torino, Italy.